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3 호 현대불교
2023년 2월 15일(음 1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자기 성품을 발견하려면 일체를 주인공에다 되놓는 작업을 하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봄을 맞이한 듯 날씨는 벌써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사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어깨를 쭉 펴고 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똑같이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온 분들도 있으니 그렇기도 하고 또 오래됐어도 새로 오는 분들보다 외려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오늘은 상근기에서 좀 얘기하고 또 중근기 하근기로 내려가도록 하죠. 간단간단히 비유를 해 봅시다.

상근기에서 본다면, 만약에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게 있다면 그것은 윤회법이요, 인과법이요, 과보를 받는 법이요, 또 윤회하는 법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생사는 면치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그건 윤회법이요, 인과법이요, 과보를 받는 법이요, 윤회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치 못한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잘 생각하셔서 넘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허허허.

그리고 부처를 이루려면, 즉 '자유인이 되려면' 하는 소립니다. 주인공의 성품을 발견해야지 만약에 성품을 발견치 못한다면 그것은 외도를 범하는 격이 되죠. '유의 법' 만의 떡 하나를 집어 먹고 그게 걸려서 모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와 같죠. 그러나 그 정신세계 무의 떡과 유의 떡을 한데 합쳐서 집어삼키면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기가 이를 데 없이 만사가 오케이죠. 그 차이가 그렇게 무섭답니다. 유의 법 50%의 떡 하나를 그냥 먹고 지내는 거와, 무의 법 50%의 떡과 유의 법 50%의 떡 둘을 한데 합쳐서 하나로 삼키는 것, 닥치는 대로 삼키는 것의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모릅니다.

부처란 업보도 없고 인과도 없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기능, 한 견해, 한 소견에 집착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자부처의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건 상근기의 얘깁니다. 절대 스스로서 허용치 않습니다. 부처란 이 지킨다는 게 없기 때문에 범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 성품은 항상 공해서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닦는다 증득한다 이런 것도 없으며 원인과 결과도 없습니다. 부처는, 자부처는 계를 지키지 않으며 그 반면에 범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선을 닦지도 않으며 악을 짓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정진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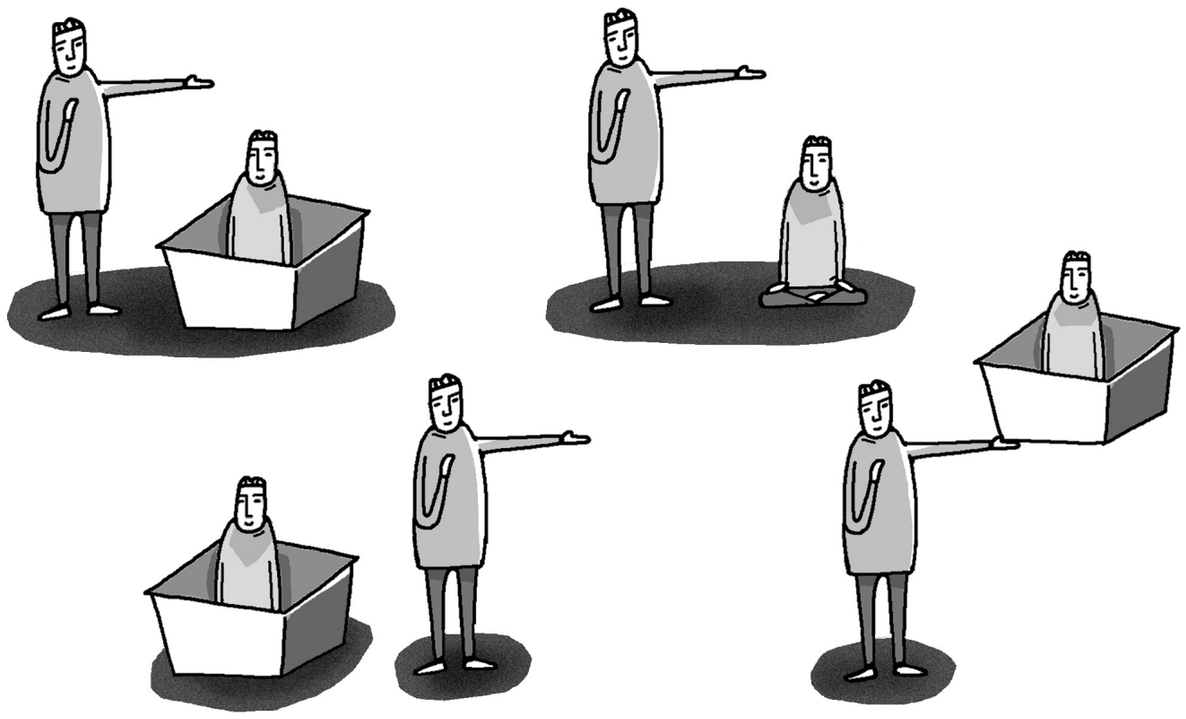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부처는 작위 없는 자유인이라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한다면 스스로서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될까, 이것이 죄가 안 될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에, 이 말에, 이 뜻에 모든 걸 한번 기울여 보신다면 한 찰나에 넘어갈 수도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쁘고 좋은 건 다 아시죠? 이거 하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도 강도질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 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번연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했다 하면 주인공입니다.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종합해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부처인 줄로 아는 것도 또는 부처가 아닌 줄 아는 것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과거로부터 벌여 놓고 어저께 벌여 놓은 게 오늘에 닥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것 당신이 해결해라.' 이거지, 누가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어 주고 대신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거둬야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기가 잘못 저질렀으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이요, 자기가 잘했으면 자기가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을 이끌고 성품을 발견해서 제대로 걸음을 걷게 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한테 되놔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본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른이 됐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이 다 일들을 하고 모두 행하고 생활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딴 놈이 해 주는 거 없어요. 각자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현실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주인공한테 되놓으라는 거고 되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입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거는 한계가 없고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기가 저지른 거 현실에도 자기가 저지르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모든 걸 당신이 하는 거니까 몰락 당신한테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거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생활 전체가 바로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다 되놔서 입력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자리에다가 되놔서 되입력이 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현실에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자꾸 놓고 관하는 데도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이건 아주 하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건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서 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의 뿌리요 주인공이지 다른 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통해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되놔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주인공의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각자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을 주인공한테다 되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 이런 게 없죠.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심성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공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주인공에다가 관하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데, 만약에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갔으면 타고 올 수도 있어야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야 이 끊임없이 이어서 진리의 길이 되는 거지, 끊어진다면 어떻게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이 다 잘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선장을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처럼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하지 않게 가차 없이 쳐서 거기다가 되놓고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너무도 잘못하고 잘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게 하고 또 잘 안되는 거는 '아, 나를 가르치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돌려서 '너만이 잘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돌려서 놓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도 알고 되는 것도 아는구나.' 하고, 안 되는 거와 되는 거 그 가운데서 진짜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리고 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지, 내리고 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되고 못되는 그 가운데에 그 자유인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그 주인공 가운데서 바로 내 성품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공했으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되놔라 이겁니다. 무슨 못 믿고 믿고가 없어요.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하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타고 났으면 주인공이자, 바로 주인공이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고

☞ 22면으로 계속

